밀폐공간작업 중대재해 사례(2명 사망, 1명 중태 "유독가스때문...")

사고일자 : 2016년 6월 1일
업　　체 : 경북 고령군 OO제지



고령 제지공장서 2명 사망·1명 중태..."유독가스 때문"(종합)
원료탱크 안에 종이 찌꺼기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참변

(고령=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제지공장에서 청소하던 근로자 3명이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17분께 경북 고령군 개진면에 있는 OO제지 공장에서 네팔인 T(24)씨가 가로 6m, 세로 6m, 높이 2m인 제지원료탱크 안에 종이 찌꺼기를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쓰러졌다.
이를 본 한국인 송모(58)씨와 강모(53)씨가 T씨를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함께 쓰러져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 외에 탱크 밖에 있던 직원이 목격해 소방당국과 경찰에 신고했다.
이 가운데 T씨와 송씨가 숨졌고 강씨가 중태에 빠졌다.
제지원료탱크는 종이와 약품을 넣어 분쇄하거나 분해하는 곳이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을 때 독한 냄새가 나서 탱크 안에 유독가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나 정확히 어떤 물질이 있었는지는 추가 조사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OO제지는 백상지 등을 만드는 회사로 직원 22명이 근무하고 있다.
탱크에 있던 3명 모두 이 회사 직원이다.
경찰은 현장을 감식하고 제지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